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떼제기도회** : 9월 2일(수) 저녁 7:30 떼제 찬양과 기도회가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속회 개학** : 이번 주부터 속회 후반기 모임을 시작합니다. 속장님들은 교회사무실에서 새로운 속회공과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문화부 회의** : 가을 교회행사를 위한 준비회의가 오늘 오후 1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실천** :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00일이 되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실종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관심을 가집시다.

다음 주 설교 본문

1부	잠 22:1-2 / 시 125	2부	
예배	약 2:1-10 / 막 7:24-37	예배	

오늘 식당 봉사 : 박미영 차혜심 이은주 윤정화 주은경 이건우 박기영  
 다음 주 식당봉사 : 최현옥 김순자 공재량 김신실 안상숙 김혜영 이순용 이주경  
 오늘설거지봉사 : 6여선교회 (41-45세)  
 다음주설거지봉사 : 7여선교회 (40이하)  
 커피 판매 봉사 : 4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처 부	10:50	유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14주 】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 14. 주 우리 하나님 ..... 다 함께
-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거룩함의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결실의 계절을 맞아 들녘의 오곡백과가 맛있게 여물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친 비바람과 뜨거운 땀별 모두를 받아드려 자신만의 맛으로 바꾸어내는 과일들처럼, 우리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 저마다의 맛과 멋으로 빚어내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잘 넘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양 당국과 민간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 고후4:6 ..... 인도자
- ♣ 교 독 문 ..... 19. 시편32편 ..... 다 함께
-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대표기도 ..... 김재흥 목사  
 응답 송 ..... 찬양대
- ♣ 찬 양 ..... 214. 나 주의 도움 받고자 ..... 다 함께
- ♣ 성경봉독 ..... I. 아2:8-13 약1:17-27 막7:1-8 ..... 리 봄 선생  
 II. 엡 6:10-20 ..... 허신열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찬 양 ..... 시편23편 ..... 찬양대
- 말 씬 ..... I. 행하는 믿음 ..... 장의림 선생  
 II. 버티고 서라 ..... 김기석 목사
- 거듭기도 ..... 다 함께

##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인식 김정숙 김나름 김대영 이효심 김승현 김수진 김애경 김영아 김윤수  
 박상호 김준호 광혜자 박숙미 박종철 임옥기 신영희 심상숙 오자영 윤수진  
 이경남 이광석 이경희 이광섭 김수연 이국노 김민화 이근식 신영신 이유선  
 이윤석 박안수 이재삼 전정현 이주경 이진영 한양미 임고은 오재형 임승동  
 백혜숙 임 영 정경례 정선희 정현숙 조현권 박아영 최종원 추현영 하정석  
 이명희 한성건 정지혜 허명선 허호범 박성실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 감사헌금

강순배 강정화 공종철 구자경 김남홍 김용진 박효선 김재욱 김희우 김희진  
 박홍재 마준혁 박미연 박민선 박준형 백묘현 신영희 안효정 윤석철 장혜숙  
 윤여민 임보람 은종인 이범석 이자애 이재문 임광순 임창국 장미경 장영숙  
 하주형 한인철 조윤숙 홍순구 안홍숙 무명9

### 생일감사헌금

강현웅 이봉옥 이은주

### 녹색꿈헌금

김향자 신영희 윤미경 윤수진 이진영 한상미 임승동 백혜숙 무명16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백혜숙	박성희	침	개학
안디옥	신진식	최경미		
가나안	장영숙	신영신		
베다니	박홍재	박홍재		
시온	권미숙	박미영		
에베소	김금순	김금순		
빌립보	곽권희	윤수진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김경혜	홍춘숙		
다메섹	박혜경	박혜경		
두란노1	김재흥	오자영		
두란노2	김재흥	송형운		
두란노3	이범석	이진영		
두란노4	이범석	곽상준		
두란노5	신진식	이오복		

▣ 마음으로 읽는 글

## 난, 삼천원짜리 국밥집을 하고 싶다

배고픈 나그네도 마음놓고/ 외상으로 먹을 수 있는 곳  
 외상장부엔 국밥 한 그릇 삼천원, 대신/ 알아보기 쉽게 특징을 적어놓고  
 가끔 떠올려 보며 안녕을 기원할 수 있는  
 그런 비밀문서 같은 장부를 만들고 싶다

주머니 만지작거리지 않아도/ 거침없이 문발 밀고 들어와  
 아줌마! 여기 국밥 한 그릇 줘요!/ 깍두기 좀 넉넉하게 주쇼~!  
 싱싱한 소리가 푸른 나뭇잎처럼 뻗어 나가는 곳

남루한 옷도 주변 눈치 볼 일이 없으며  
 오랜 객지생활 끝내고 고향집에 돌아온 듯  
 고단한 일상을 흠뻑 땀으로 쏟아낸 후  
 휘파람을 불며 일터로 향할 수 있는/ 속정이 넘치는 국밥집을 열고 싶다

쓸쓸한 노인에게 살가운 딸처럼/ 몽울몽울 흰 구름 한 스푼 넣고  
 커피 한 잔, 정성껏 저어 대접해 올리리라/그렇게 시린 속 데워갈 수 있다면,  
 어딘가에서 잃어버렸던 햇살 같은 평화/ 한 가닥 두르고 일어나는 곳

하루를 종횡무진 뛰어다녀도/ 아프지 않고, 맛있는 단잠에도 빠질 수 있겠다  
 별밤엔 그들의 땀 냄새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일기에 빼놓지 않고 쓰겠다  
 외로운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모이는 곳/ (국밥 한 그릇 3,000원 무한리필)  
 현수막이 바람과 함께 춤추는 국밥집을 한다면 좋겠다.

- 채정화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459. 누가 주를 따라 .....	다 함께
♣ 봉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악하고 그릇된 것에 자신과 세상을 쉽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굳게 서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며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며 사십시오.	
다 함께:	아멘. 연약한 나 자신과 그릇된 세상에 쉽게 실망하던 지난 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굳세게 붙들고 있음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복	.....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섬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저녁 집회 / 떼제 찬양과 기도회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기석 목사	이진영 집사 오자영 집사

8	영접위원	윤석철 최철수 정원석 백혜숙 김금순 강순배
	헌금위원	김인걸 이형숙

## 빈 그릇으로 되갚는 평화

여러 교회들처럼 청과교회 역시 주일 예배 후에는 교우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 점심식사를 통해 우리는 신앙공동체에 이어 식탁공동체로 다시 한 번 연대하고, 또 서로에게 많은 격려와 위로, 안부를 전합니다.

최근 쌀 소비량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밥은 그저 배고픔을 덜기 위한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밥과 밥 먹는 행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를 나눌 때에도 그저 ‘안녕하세요.’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식사하셨어요?’ 라고 묻기도 하고, 다음에 한 번 만나자는 약속을 할 때는 ‘언제 밥 한 번 먹자’라고 합니다. 그 만큼 밥 먹는 행위는 우리에게 중요하고도 익숙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밥 한 그릇이 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의 수고와 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활협동조합인 한살림을 시작한 무위당無爲堂 장일순 선생은 ‘밥 한 그릇에 우주가 담겨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이 참말이라고 느껴집니다. 한자어 쌀 米(米)는 사람의 손이 여든여덟 가는 것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그 만큼 쌀농사는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정성스러운 일이라는 뜻일 겁니다. 쌀 한 알을 얻기 위해 하늘과 땅이 내어주는 에너지와, 농부의 수천수만 번의 손길과, 눈에서부터 식탁까지 쌀이 이동한 과정에 든 에너지와 사람들의 수고로움, 그리고 쌀이 밥이 되기까지 밥을 짓는 이들의 정성과 사랑을 생각한다면 쌀 한 알에 우주가 담기고도 남을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밥 한 그릇에 담겨있기에 무위당은 “밥 한 그릇 속에는 우주의 진리가 깃들여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동체적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한 그릇의 밥’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양분이요, 우리네 이웃들의 땀인 줄 안다면 자연과 이웃의 고마움을 알고 되갚을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것입니다.

우리 청과교회는 녹색교회로 잘 알려져 있는데, 녹색교회로 알려진 여러 요소 중에 으뜸은 바로 ‘빈 그릇 운동’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우리교회 주방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량이 스멀스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늘어난 것만이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함께 해도 모두가 빈 그릇 운동을 실천한다면 잔반은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또 누군가가 퇴식구 앞에서 잔반을 모두 먹어야만, 혹은 잔반을 줄이자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해야만 가능한 일일까요.

빈 그릇 운동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물과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 환경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뿐 아니라 ‘밥 한 그릇’에 담겨 있는 하늘과 땅의 은총을, 많은 사람들의 땀과 정성을, 그리고 모든 살아 있는 것의 생명과 내 안의 우주를 귀하게 여기는 일이자 내 이웃에게 고마움을 되갚는 일입니다.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이, 들녘 가득 익어가는 벼이삭과 탐스럽게 영글어가는 과일이, 무엇보다 맑고 높푸른 하늘이 우리를 설레게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모든 생명이 열매 맺는 가을을 맞아, 다시 한 번 빈 그릇 운동의 실천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세상에 되갚는 우리가 되기를 바람해 봅니다.